

생동하는 남도의 봄 거침없이 질주해 봄 3·1정신 계승해 봄

사진=나명주·최현배·김진수 기자

“결승선이 바로 저기”

1일 진행된 제51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하프 코스에 참가한 이강진씨가 결승선을 향해 달리고 있다.



“나도 마라토너” 하프코스에 도전장을 낸 노유성(11) 어린이가 어른들 사이에서 힘차게 질주를 하고 있다.



출발 전 몸풀기 3·1 마라톤 참가자들이 출발에 앞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민주광장에서 몸을 풀고 있다.



봉사하는 당신이 챔피언 결승점인 상무시민공원에서 향림사 반야 봉사단원들이 참가자들을 위해 배식봉사를 하고 있다.



태극기 휘날리며 하프코스에 참가한 이의섭씨가 3·1절을 기리며 모자에 태극기를 꽂고 달리고 있다.



“강바람이 상쾌해요” 풀코스에 참가한 선수들이 남구 승촌보 구간 영산강길을 달리며 카메라를 향해 환한 표정을 짓고 있다.



“ㅋㅋ ㅋㅋ 웃으며 살자” 웃으며 살자는 의미를 담아 제작한 ‘ㅋ’ 티셔츠 차림으로 손을 맞잡고 결승선에 들어오는 하프코스 참가자들.